

# 계분, 더 이상 농가소득원이 될 수 없는가?

□ 취재/김동진 기자



△ 계분 발효 산업은 농가에 이익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으나 인건비, 톱밥비 등 생산비 요인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계분은 농가의 부산물 수입원으로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한 요인이라 생각되어 본고에서는 현재 채란농가에서의 계분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계분은 비료의 대체원료로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성분면에서도 우수하여 이를

**축**

산분야 전체가 국내의 환율폭등 여파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양계인들은 생산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잘 활용할 경우 국가나 농가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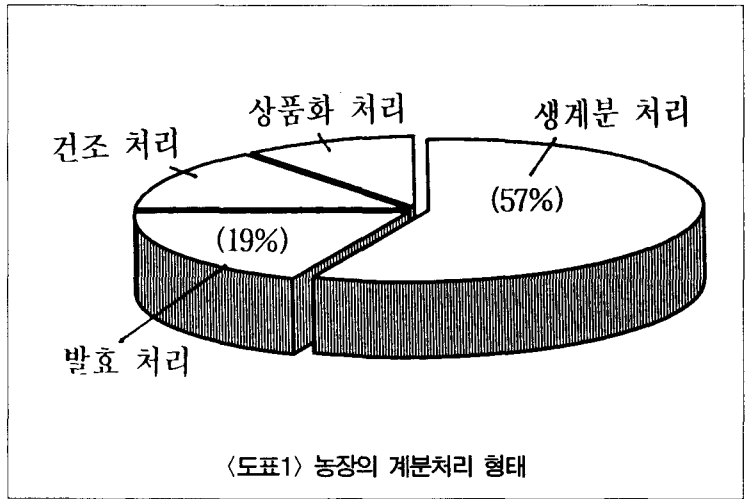
사실 '90년 이전까지 화학비

료의 사용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후 유기질 비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요 또한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산란계의 경우 1일 1수당 약 150g의 계분을 생산하고 있으며 1만수를 사육할 경우 하루에 1.5톤의 계분이 생산되는데 이 계분을 완전 건조시킬 경우 약 375kg(75% 수분제거)의 계분이 생산된다.

1년동안 계속 생산된다고 보면 약 136톤의 계분이 생산되며 이 계분을 20kg 단위로 포장할 경우 총 6,800포를 생산할 수 있어 생산비를 줄이고 상품화를 기할 경우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 1. 설문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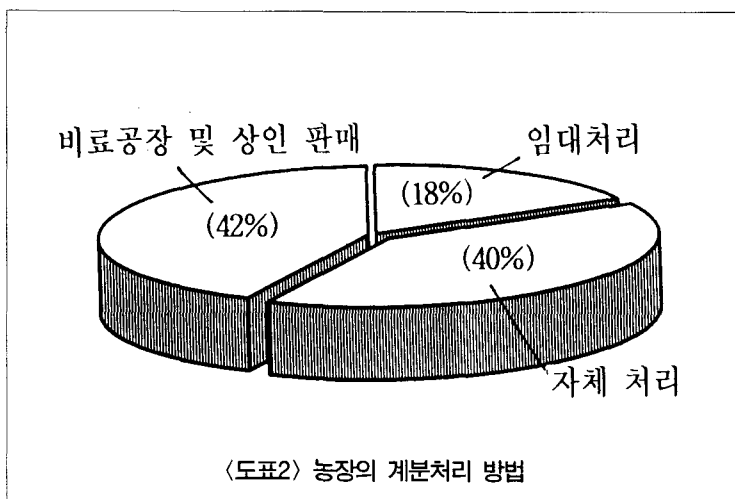
채란농가의 계분처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서 채란업을 경영하는 63개 농장(5만수 이상 21개 농장, 5만수 미만 42개 농장)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조사하였다.

농장의 계분처리 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생계분 처리가 57%(36농가), 건조후 처리가

14%(9), 발효후 처리가 19%(12), 상품화(계분포장) 처리가 10%(6)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서 생계분 처리가 의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지역적으로 계분 처리시설을 갖춘 비료공장 등에서 수거를 해가거나 임대를 맡은 계분업자들이 수거를 해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화 처리를 하고 있는 농가의 대부분은 발효시설을 갖춘 대규모농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분처리 방법을 묻는 질문에서는 자체처리가 40%(25), 임대처리가 18%(11), 계분공장 및 상인판매가 43%(27)로 나타나 많은 농가들이 직접 계분을 처리하지 않고 임대 또는 계분비료공장(16%) 및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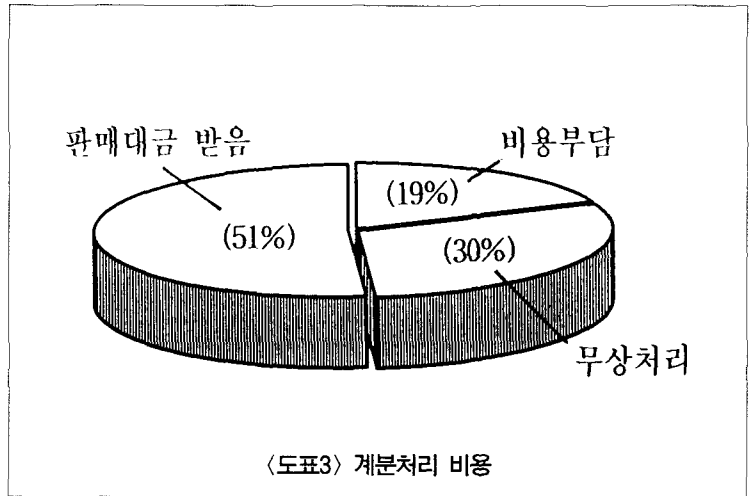


인들(27%)에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분자원화에 대한 인식이 늘면서 지역적으로 비료공장들이 늘어나는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 과거보다 계분처리하는데 수월한 반면 농가들의 수익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실질적인 수입을 알 수 있는 계분 처리비용을 묻는 질문에는 돈을 오히려 지급한다는 농가가 19%(12)로 나타났으며 무료로 처리한다는 농가가 30%(19), 돈을 받고 처리한다는 농가가 51%(32)로 조사되어 계분처리에 대한 댓가를 받지 않거나 처리비용을 오히려 지불하는 농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많은 농가들이 계분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처리비용을 오히려 지급하는 경우를 보면 농장주변 여건상 계분의 소비처가 부족하여 농가 스스로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와 재래식 계사의 경우 농장에 쌓인 계분까지 정기적으로 치워주는 조건으로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무상으로 치워주는 경우는 치워주는 자체만이라도



고맙게 생각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부농가에서는 계분을 처리하는데 톱밥, 왕겨, 계분처리시설 등에 드는 비용을 계산할 경우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분을 무료로 처리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이론을 내놓기도 하였다.

## 2. 각 지역별 계분 판매 현황

지역적으로 계분판매 실태를 살펴보면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다. 이를 보면 제주도, 강원도, 경상도 지역이 계분을 처리하는데 대체적으로 애로사항이 적었고 가장 큰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경우는 감귤,

당근 등이 꾸준히 재배되면서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경상도의 경우도 과수원과 특용작물, 특화단지 등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격을 보면 발효 계분 20kg 한포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제주도와 강원도는 1,500원~2,000원, 경상도는 1,500원~2,800원으로 나타나 농가 소득원으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계분처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소득이 좋치 않은 지역은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20kg 한포에 2,000원까지 받는 농가도 개중에는 있지만 돈을 받고 처리를 하는 농가 대부분은 450원~1,000원 정도로 낮게 거래를 하고 있으며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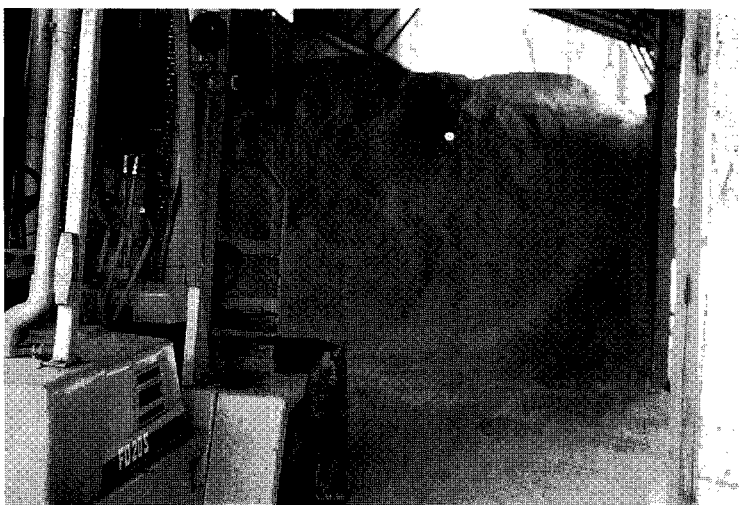
히려 돈을 부담하는 경우는 치워가는 조건으로 1만수기준 월 20만원을 주는가 하면 농가에서 왕겨나 톱밥을 대주는 조건으로 그 가격을 계분장사들에게 지불하고 있는 곳이 많았다.

전라도 지역이 수익이 낮은 이유중 하나는 축협 비료공장 등 2~3개의 공장에서 무상으로 계분을 수거해 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기도의 경우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는 20kg 한포의 경우 1,000원~2,500원까지 조사되었으나 무상 또는 오히려 돈을 지불하는 곳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같은 상품이라도 차로 판매하는 경우는 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보다 1/3 낮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인데 포장비, 인건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턱없이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게 공통적이었다.

한 예로 경기도의 한 계분 사료공장의 경우 생계분은 농가에서 무료로 가져오고 톱밥과 섞어서 모아둔 계분은 5톤차에 16만원을 지불해 주는데 이럴 경우 20kg 1포를 기준으



△ 계분발효에 쓰일 톱밥을 창고에 보관하는 광경(톱밥 부족현상으로 원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로 환산해 보면 640원을 농가에게 주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톱밥비가 5톤차에 25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거의 없는 꼴이 된다.

### 3. 농가의 계분처리 사례

비교적 계분처리 시설을 갖추고 상품화에 접근하고 있는 농장(경기도 이천소재 S농장)을 찾아 계분처리 실태를 알아보았다. 현재 발효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졌고 포장기계까지 설치되어 상품화까지 가능한 이 농장(10만수 무창계사)은 60%정도의 수분을 함유한 계분이 수거되면 곧바로

계분 발효실로 이동하여 톱밥과 약 6 : 4 비율로 섞어 발효기를 통해 약 한달간 건조, 발효 처리시킨다. 10만수 규모로 하루에 발효처리되는 물량만 약 5톤(톱밥 처리 포함)으로 대부분이 인근 계분 비료공장으로 납품(20kg 기준 900원)되고 있으며 성수기인 봄과 가을철에는 직접 포장기를 이용해 20kg 1포에 1,300원에 농가에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농장은 처음에 정식적으로 등록을 하여 비료를 상품화시킬 계획이었으나 등록을 하게될 경우 별도의 영업활동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아니라 최근들면서 톱밥 등 생산비 요인이 상승하여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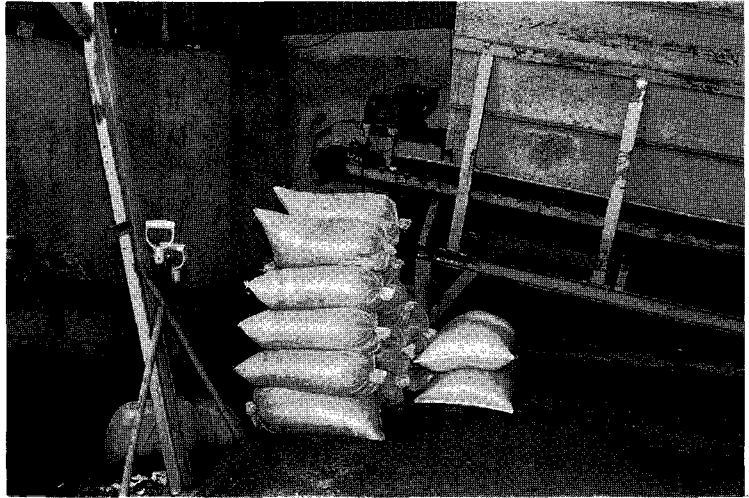
이득을 남기지 못해 전문적으로 계분을 처리하는 사료공장에 넘겨주고 계란생산에만 전념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되었다고 한다.

톱밥의 경우 과거에는 건축자재로 목재를 많이 사용해 톱밥의 공급이 활발했는데 철재를 이용한 공사가 활발한 요즘 톱밥이 부족해 가격만 자꾸 상승되고 있어 앞으로 더 어려워질것을 우려하였다.

현재 이 농장은 톱밥 3.5톤 차에 28만원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이 농장의 경우 인건비, 전기료, 상하차비, 톱밥비, 포장비 등을 감안하면 20kg 한포를 생산하는데 거의 1,000원 정도가 들어 성수기때는 한포에 300원 정도의 순 이익이 남지만 그렇치 않고 계분비료공장에 납품할 경우 100원 내지 겨우 이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다. 즉 계란판매수익에 비해 계분 수입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를 농가수입으로 가져오기는 실질적으로 힘들다는 견해를 주었다.

#### 4. 문제점 및 방안

농가에서 겪고 있는 계분처



△ 농가에서 직접 포장, 판매할 경우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나 비수요기 때는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리의 문제들을 보면 계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비수기(여름과 겨울)의 경우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발효를 직접하는 농가의 경우 왕겨가격과 톱밥가격이 비싼데다 구하기 힘들어 상품화를 시키더라도 큰 이익이 없을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계분상인을 구하기조차 힘들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료관리법 시행령에서 보면 축산물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1일 평균 1.5톤 이상의 부산물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반드시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대군업자들을 제외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대군업자라 하더라도 비료공장 등에 원료로 공급할 경우는 등록이 필요없다.

계분의 자원화는 장기적으로 볼때 산성화 방지 등 토질강화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수요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농장들이 계분을 처리하는데 큰 이득을 남기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이지만 대체비료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농장 자체적으로 계분자원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경우 농가소득원으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양계**